



남원 평화의집-남원중학교, 업무협약 체결

남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집은 지난 15일 남원 중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공헌을 높이고, 장애인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함께 사회공헌활동, 교육 및 문화 교류, 정보 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남원중학교는 학생들의 사회봉사 의식을 높이며 지역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평화의집은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해 노력할 약속했다.

남원중 이진희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높이고, 상호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화의집 김종열 원장은 “남원중 학생과 평화의집 입주자가 지역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화재시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 확대는 차량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는 신규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차량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금산면 복지기동대, 집수리 봉사 펼쳐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장민호)가 지난 18일 홀로 거주하는 지체 장애 대상자의 소규모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집은 벽을 이루는 플라스틱 강판이 이곳저곳 구멍이 뚫려 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며, 보일러 문은 노후가 심해 동파 위험이 있어 집수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이번 활동은 기존에 노후·훼손된 플라스틱 강판을 철거하고 새롭게 칼라 강판을 직접 재단해 벽을 만들었다. 또한, 보일러 동파 위험이 있는 보일러실 문 교체 공사도 실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 박세은 박사과정생, 연구 활동 결실

국제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선발… 'IEAGHG International CCS Summer School' 참여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박세은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오주원)이 전 세계 과학, 사회, 경제 분야 석박사급 신진연구인력 45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16회 IEAGHG International CCS Summer School' 수강생으로 선발됐다고 19일 밝혔다.

IEAGHG International CCS Summer School은 1991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후원으로 설립된 IEAGHG(The IEA's Greenhouse Ga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운영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박세은 박사과정생은 오는 6월 23~29일 호주 다윈에서 개최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세계 신진 연구인력들과 함께 참여한다. 선발 학생들에게는 소수와 식사, 교육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르면 박세은 대학원생은 캐나다 웰링턴대학(6개월)에서 육상 이산화탄소 누출 모니터링 연구, 미국 메시추세츠 공과대학(3개월)과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 연구소(3개월)에서의 육상 지열발전 부지 특성화 연구,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3개월)과 노르웨이 지반공학연구소(4개월)에서 해양 이산화탄소 저감제작 부지특성화 및 모니터링 공동연구 등 다양한 연구 경험과 충분한 영어 소통 역량을 심사위원들로부터 인정받아 선발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 산학장학생 선발, 한국지원공학회장상 수상,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의 학생우수논문발표상(2건) 수상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지원공학 분야의 우수 신진 연구인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전북대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지원에너지공학)와 환경에너지융합학과는 K-CCUS 추진단의 지원을 받아 부처협업형 온실가스감축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세은 박사과정생의 이번 IEAGHG 국제 교육 프로그램 선발로 지난 2년간의 연구 활동이 결실을 거뒀다.

박세은 박사과정생은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활발한 인력양성사업과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면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연구역량을 축적해 올 수 있었다”며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준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지원에너지공학),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님들과 학부 3학년 때부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준 오주원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원인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로 성장해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무주경찰서, 레미콘업체 방문 사고 예방 활동

무주경찰서에서는 19일 오전 무주읍에 위치한 레미콘업체(주)두리로드를 비롯한 관내 회물, 레미콘 업체를 방문하여 기사 및 직원 등 30여명 대상으로 건설기계 차량 등에 의한 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해빙기 이후 건설현장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운행에 대한 당부와 낙하물 사고 예방 요령들을 홍보했다. 또한 농촌지역 현장에서 고령자 등 보행자 사고 주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등을 설명하였고 교통안전리플릿과 물티슈를 홍보물품으로 배부했다.

앞으로도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는 군민들의 평온한 교통 안전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법규 위반한 운전자들에게는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캠페인

무주소방서는 지난 18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반딧불시장 및 무주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인식 개선과 실제 상황 대비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 △소방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운전자 길 터주기 방법 교육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경찰서, 학교폭력 · 사이버 불법도박 예방 교육

진안경찰서(서장 송승현)는 19일 개학을 맞아 학교폭력과 비행 등 일탈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국기술부 사관 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종류 △학교폭력 대처법 △미약 · 범죄예고글 게시 △사이버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학생들의 사이버 불법도박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지난해 한국미디어페털 조사에서 학생들의 도박경험 응답이 25.8% 달하였다고 한다.

이에 진안경찰서는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사이버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위해 수업을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